

## 요약

## 방한 외래관광객 앞으로도 지속증가 전망 아시아시장 타깃 국가별 맞춤 전략 필요

### 아시아 관광시장 성장세 뚜렷... 동아·동남아시아 급성장세 시현

2010년 이후 연평균 4.7%씩 빠르게 성장해온 세계 입국자 수는 2013년 11억 명을 초과하였다. 이처럼 관광시장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부문 중 하나인데 특히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입국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목적지가 유럽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찾는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형 관광객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표 1]** 세계 및 주요지역 입국자 수 추이

(단위 : 백만 명, %)

구분	입국자 수					연평균 증가율			
	1995	2000	2005	2010	2013	1990s	2000s	2010s	'95~'13
세계	550	706	837	980	1,123	4.4	3.0	4.7	4.0
유럽	284	370	447	486	546	4.8	2.7	3.9	3.7
동아시아	34	58	87	111	127	11.2	5.9	4.4	7.6
동남아시아	32	41	55	80	105	3.1	6.3	9.6	6.8

해외여행객 중 상당수는 이동 비용 및 시간이 적게 드는 인근 국가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찾는 여행객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영해나 영토를 맞대고 있는 인근 국가 사이에는 정치 외교적 마찰이 있는 경우가 다반사지만 이 점이 관광객의 발걸음을 저지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방한 관광객 2014년 1,400만 명 돌파 '88올림픽 후 최대 증가율'

방한 외래객은 2014년 1천4백만 명을 초과하며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는데, 이는 88올림픽 이후 사상 최대의 증가율이었다. 방한 관광시장이 이 같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그 속을 면밀히 살펴보면 개별 시장별로 긍정적, 부정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2013년부터 대폭 감소한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관광객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시장별 방한 외래객 추이는 변화하는 데 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시장 분석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주요 시장별로 방한 관광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관광시장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향후 방한 외래객을 전망해볼 필요가 있다.

## 방한 관광시장 규모 10대 국가 중 8개국이 동아시아에 위치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객들이 방한 외래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방한 외래객은 전체 외래객의 70%에 육박한다. 또 주요 해외 방한시장인 10개 국가 중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8개 국가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표 2]** 주요 방한 시장 외래객 수

(단위 : 천 명, %)

순위	국가	외래객 수		순위	국가	외래객 수	
		2014	연평균 증가율 '00~'14			2014	연평균 증가율 '00~'14
1	중국	6,127	20.6%	6	태국	467	12.7%
2	일본	2,280	-0.6%	7	필리핀	435	4.1%
3	미국	770	3.8%	8	말레이시아	245	10.6%
4	대만	644	12.3%	9	러시아	214	2.3%
5	홍콩	558	7.6%	10	인도네시아	208	9.4%

목적별로 살펴보면 관광 목적 방한 외래객이 단연코 가장 많았다. 특히 일본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래객의 수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관광객 외에도 승무원을 포함한 기타 목적 방한 외래객이 함께 증가하였고, 특히 유학연수 목적 방한 외래객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가 최근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표 3]** 목적별 방한 외래객 추이

(단위 : 천 명, %)

구분	목적별 방한 외래객 수			연평균 증가율		
	2005	2010	2014	'05~'09	'10~'14	'05~'14
관광	4,304	6,293	10,778	6.9	14.4	10.7
상용	258	269	259	0.8	-0.9	0.1
공용	38	30	40	-3.4	6.9	0.4
유학연수	35	135	157	36.2	3.9	18.1
기타	1,033	1,627	2,432	8.5	10.6	10.0

## 방한 관광시장의 주요 결정요인은 소득...비용은 제한적인 영향

방한 수요가 가장 큰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의 방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소득을 나타내는 변수로는 1인당 실질 GDP,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환율을 사용하였으며 SARS를 더미변수로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섯 개 국가의 방한 수요는 모두 소득의 영향을 받았으며, 방한 일본인과 미국인의 경우 환율과 SARS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주요 방한 시장 회귀분석 결과

	중국	일본	미국	대만	홍콩
1인당 실질 GDP	3.58***	1.998***	5.541***	3.044***	7.797***
대(對)원화 환율	-1.146	0.597***	0.98***	-5.99	1.283
SARS	주) 참조	-0.248**	-0.157**	0.0452	주) 참조

\* p<0.10 \*\* p<0.05 \*\*\* p<0.01

주) 중국과 홍콩은 각각 2008년과 2007년 이후 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SARS는 고려대상에서 제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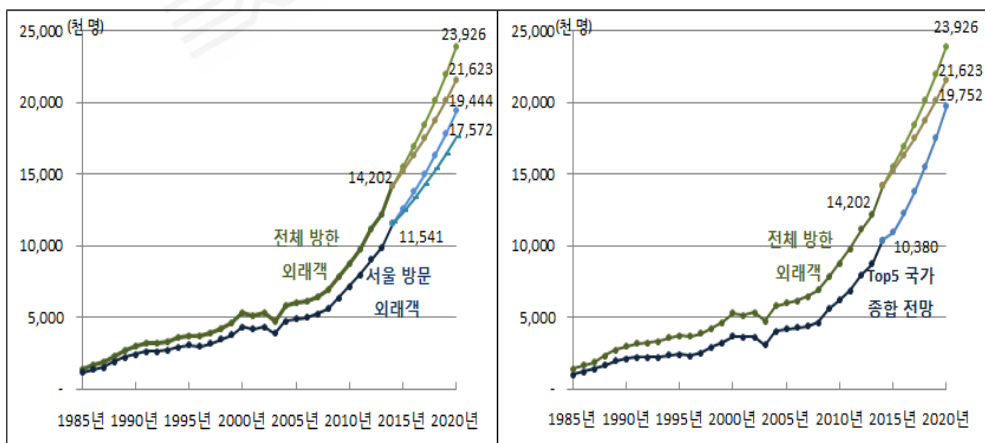
## 방한 외래객 2018년쯤 2,000만 명 예상... 서울은 2020년경 돌파

향후 관광수요 전망은 곡선적합 기법을 이용하여 방한 수요를 전망하였다. 곡선적합 기법에 필요한 추세함수는 최소자승법을 이용하여 구했다. 그 결과 방한 일본인은 선형함수 형태를, 전체 외래객과 중국, 미국, 홍콩, 대만 국적 외래객, 5개 주요 국적 외래객의 합은 지수함수 형태를 보였다.

[표 5] 방한 외래객 추세 함수

국적	추세 함수	
전체 방한 외래객	낙관적 전망	$f(x) = 3607643e^{0.09x} + 3$
	보수적 전망	$f(x) = 1521886e^{0.07x} + 3$
주요 5개 국적 외래객	$f(x) = 155e^{0.13x} + 1606111$	

향후 외래관광객 전망치를 추세에 맞추어 분석한 결과 연평균 증가율 7~9% 정도로 최근 증가율 보다는 다소 낮은 보수적 관점으로 추정되었다. 그 결과 2016년 방한 관광객은 16.4백만~17백만 명가량 될 것이고, 2018년에 18.8백만~20.2백만 명으로 2천만 관광객 시대가 도래하고, 2020년에는 21.6백만~24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만일 최근처럼 연 12~15%의 높은 성장률을 계속 보인다면 이 전망치들은 1년가량 당겨질 수 있다.



[그림 1] 전체 방한 외래객, 서울 방문 외래객, 주요 5개 국적 방한 외래객 전망

서울 방문 외래객은 2012~2014년 기간 평균 서울 방문율의 평균값을 적용하여 추정된 결과 2016년에는 12.3백만~13.8백만 명가량으로 추정되었고, 2020년에 이르러 20백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또한 두 자리 증가율이 지속된다면 1년간가량 당겨질 수 있다.

시장별로는 방한 중국인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일본인의 경우 느리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방한 외래객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계속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경우에 따라선 방한 대만인이 방한 미국인의 수를 앞지를 가능성도 엿보인다. 방한 홍콩인은 연평균 6.9~2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라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르게 증가하는 국적의 외래객이 될 수도 있지만, 전망치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어렵다.

**[표 6]** 방한 외래객 전망

(단위 : 천 명, %)

	2016	2018	2020	연평균 증가율
총 방한 외래객	16,353 ~ 16,962	18,804 ~ 20,145	21,623 ~ 23,926	9.0 ~ 7.2
서울 방문 외래객	13,289 ~ 13,785	15,281 ~ 16,371	17,572 ~ 19,444	9.0 ~ 7.2
주요 5개 국적 외래객	12,293	15,531	19,752	12.6
방한 중국인	8,847 ~ 9,739	12,183 ~ 16,611	17,656 ~ 28,334	18.9 ~ 30.6
방한 일본인	2,684 ~ 3,257	2,757 ~ 3,409	2,856 ~ 3,562	1.6 ~ 2.3
방한 미국인	843 ~ 1,093	928 ~ 1,316	1,024 ~ 1,547	5.0 ~ 9.1
방한 대만인	755 ~ 776	913 ~ 981	1,104 ~ 1,272	10.0 ~ 13.1
방한 홍콩인	639 ~ 764	730 ~ 1,151	835 ~ 1,943	6.9 ~ 26.3

## 중국, 일본 외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목적의 외래객 유치해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개도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빠른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미 관광시장이 발달한 선진국 보다 해외관광 수요가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방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상용, 유학연수, 공용, 기타 목적 방한이 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러한 목적별 방한 추이와 특성을 고려한 외래객 유치 노력도 필요하다.

한편 현재 방한 관광시장은 중국에, 과거에는 일본에 크게 의지하면서, 큰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국가에서 방한 외래객을 유치해야 한다. 그런데 같은 중화권이라 하더라도 대만과 중국의 문화가 다르고, ASEAN 회원국이라 하더라도 제각각 고유의 정치, 경제, 문화 체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맞춤 전략이 필요하다.

